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제20회 영랑문학제 3
첨부파일(5) 3

제20회 영랑문학제

작성일 2023.05.02 11:04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53

첨부파일(5)
- 문학제.jpg 6 hit/ 2.11 MB 다운로드
- 문학제 2.jpg 4 hit/ 2.29 MB 다운로드
- 문학제 3.jpg 6 hit/ 1.68 MB 다운로드
- 문학제4.jpg 4 hit/ 2.27 MB 다운로드
- 문학제5.jpg 7 hit/ 295.5 KB 다운로드

8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특 집 제1241호 강진신문

모란향기 그윽한 영랑생가에서 다시 피어난 김영랑 시인

제20회 영랑문학제 '다시 찾은 영랑의 봄' 주제 이틀간 열려...전국영랑백일장·시낭송 청람중 박채윤, 광주 김영이 씨 대상

康津日報 제550호 특 집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7

4년만에 다시 찾아온 영랑문학제 … 봄은 화사했다

제20회 영랑문학제 영랑생가 일원서 개최

지역출신 김선태 시인 영랑시문학상 수상

(http://www.gangjin.go.kr)

어지며 분위기를 띄웠고 김숙예 작가의 동화를 밑바탕으로 제작된 영랑 애니메이션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기념식에서는 강진원 군수와 영랑 시인의 유가족인 김현철씨의 인사말과 김보미 군의장,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강진합창단과 김명희 울림시낭송회장이 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의 협연을 펼쳐 관객들의 박수를 무리했다.

영랑문학제 기간동안 전국 영랑백일장 대회와 전국 영랑 시낭송 대회가 함께 열렸다.

백일장 대회에는 전국에서 388명이 응모해 강진의 청람중 박재윤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고 시낭송대회에는 74명이 예선에 참여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온 김영미씨가 대상을 받았다.

/오기안 기자

1. 중앙초 학생들의 페막공연 모습.
2. 강진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3. 강진원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전시실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5. 백일장 참석 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다.
6. 본사 주최순 대표가 특강을 하고 있다.
7. 김선태 시인이 영랑시문학상을 받았다.
8. 개막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9. 영랑 선생 3남 김현철 선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 황주홍 전 의원이 참석했다.
11. 통사모의 축하공연이 진행중이다.

인터뷰 |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

"재능있는 지역 예술인에 기회제공 성공적"

제20회 영랑문학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석우(63) 시문학파기념관장을 만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 관장은 "게막날 가수 김원중씨를 제외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사람들을 모두 강진 사람들로 채웠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에도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바꿨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특히 강진합창단과 강명희 회장의 협연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 정도로 감동을 전해주었고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전문 공연팀이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장은 "전국단위로 모집한 백일장과 시낭송 대회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며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도 사람들이 참여해 강진을 전국에 알리는데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장은 "내년에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영랑문학제에도 도입하기위해 방법을 연구중이며 6개월전부터 미리 차분하게 행사를 준비해나갈 생각"이라며 "또한 전국의 예체능관련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함께 무대도 꾸미는 등 전국단위 행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0회 영랑문학제, 백일장&시낭송대회 '성료'

■ 영랑시문학상 수상자 김선태 교수

강진군이 주최하고 시문학파기념관이 주관하는 '제20회 영랑문학제'가 지난 14일과 15일까지 양일간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영랑문학제는 영랑생가와 주변경관을 무대로 영랑시인의 시 세계를 조명한 것을 비롯 인문학적 감성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영랑생가 내에서 전국영랑백일장대회가, 오후 1시부터는 시문학파기념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어 오후 3시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막식과 제20회 영랑시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강진원 군수는 "영랑생가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강진 관광의 1번지이다"며 "자랑스러운 영랑의 시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모란공원과 연계한 사업 추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보미 군의회 의장도 "강진이 낳은 영랑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고장"임을 역설하고, 군과 함께 의회도 영랑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동아일보사와 강진군이 공동 주관하는 제20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국립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선태 교수가 상패와 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수상작은 2022년 11월에 발간된 시집 '짧다'이다.

김선태 시인은 소감을 통해 "책이 귀하던 시절, 시를 접할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영랑시집이었다"며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 영랑 선생의 이름인 '영랑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며,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출신인 김선태 시인은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의 시집과 풍경과 성찰의 언어, 진정성의 시학 등의 평론집을 펴냈으며 시작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선태 교수는 같은 시집에 실린 시 '단팥'으로 고산문학이 주최하고 대산문화재단이 선정하는 2023년 공화문 글판 봄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세영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기존에 충실하면서도 시적 새로움을 성취해 우리 시의 발전에 힘을 보탤 만한 시집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다"며 "대작품의 시편이 짧은관에 속하지만 깊은 울림과 새로운 감각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한 제20 영랑문학제 개막식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개최됐으며, 전국영랑백일장과 전국영랑시낭송대회 시상식을 함께 가졌다. /이주연 기자

제20회 영랑문학상 수상자이자 강인 김선태 교수

시낭송대회와 백일장 수상자 기념촬영 | 전국영랑시낭송대회 대상 수상자 | 전국영랑시낭송대회 중고등부 최우상 수상자 | 전국영랑시낭송대회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자

■전국영랑시송대회 '품격 갖춘 대회' 호평

'대상' 대학일반부 김영이씨, 기량 뽐내

제20회 영랑문학제 일환으로 제12회 전국영랑시낭송대회가 15일 오전 10시부터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본선대회에는 지난 10일 공정한 예심을 거쳐 선정된 초등부 7명, 중고등부 7명, 대학일반부 9명이 지정시와 자유시를 낭송하며 경선을 치렀다.

본선 심사위원으로는 이지엽, 서상 김영희 심사위원과 최한선 심사위원장 등 4명의 심사위원이 전달력과 무대예절, 시적요소 구현, 예술표현 등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심사 집계 결과, 초등부 최우수상은 무안행복초 심하은 학생, 중고등부 최우상은 강진중 이승재 학생,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은 이선미씨, 대상은 대학일반부 김영이씨가 차지했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영랑문학제 폐막식장인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가졌다. /이주연 기자

시낭송대회 심사기준 발표

폐막식

2023 영랑문학제에 참여한 여성단체협의회원들

제20회 영랑백일장 및 제12회 영랑시낭송대회 개최

제20회 영랑문학제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http://www.gangjin.go.kr)

제20회 영랑백일장 및 제12회 영랑시낭송대회 개최

강진시문학파기념과과 강진문인협회가 주관한 제20회 영랑문학제가 지난 4월 14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랑생가 일원에서 개최됐다.

또 강진시문학파기념과과 강진울림시낭송회가 주관한 제12회 영랑시낭송대회가 지난 15일 오전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는 이미 거친 예선에 이어 최정 본선이 열렸다.

이어 15일 오후 3시에 개최된 폐회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이번 백일장대회 200만원 상금과 전남도지사상이 주어지는 대상에는 강진군 군동면 청람중학교 3학년 박채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또 제12회 전국 영랑시낭송대회 대상은 광주광역시 김영이씨가 상금 200만원 및 전남도지사상 및 시낭송 가중을 받았다.

이현숙 기자

시문학파 시인들의 시세계와 한국의 전통시 주제

제20회 영랑문학제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4월 14일 오후 1시부터 2시 50분까지 강진시문학파기념과 세미나실에서 (사)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유현 이사 사회로 개최됐다.

번 심포지엄은 강진시문학파기념과과 (사)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에서 주관하여 제1주제와 제2주제, 특강 순서로 이어졌으며,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을 비롯한 시조분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시문학파 시인들의 시세계와 한국의 전통시' 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제1주제 '시문학파 시의 남도적 정한과 언어 그 의미적 교호성'이며 소제목으로 김영랑, 박용철, 김현구 시를 중심으로 발제 토론했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노창수 문학평론가의 발제로 이어진 토론에는 문학박사 이송희 전남대교수와 강진문인협회 회장 이현숙 소설가가 토론했다.

또 제2주제는 '시문학파에 나타난 한국의 정형시, 시조'의 주제로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민정 문학박사의 발제에 이어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 우은숙 문학박사가 토론의 장을 열었다.

또 이어진 특강에서는 경영학박사인 강진일보 주희춘 대표가 '영랑과 현구, 다름과 같음의 미학'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통해 강의했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들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온 문학인들과 강진문인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영랑학술세미나를 빛내었다.

이현숙 기자

강진고을

THE GANGJIN GOEUL NEWS

750호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제20회 영랑문학제 성료

영랑시문학상 김선태 시인, 시집 『짧다』 선정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시문학파기념관에서 주관한 제20회 영랑문학제 개막식이 지난 4월 14일 오후3시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군수, 김승남 국회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및 강진군의원과 이병삼 강진교육장을 비롯한 지역기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외부인사 중에는 영랑시인의 가족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3남 김현희(90세 전 동아일보기자)씨와 손녀 김혜경(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씨가 참석했으며, 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 및 한국문인협회 임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개막식의 꽃인 제20회 영랑시문학상 시상에서는 상금 3,000만원을 강진원군수와 공동주관기관인 동아일보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목포대 교수 김선태 시인에게 전달하며 축하했다.

또한 강진합창단과 함께 김명희 울림시낭송회장의 시낭송이 어우러졌으며, 강진동사모의 기타연주, 및 김원중 가수의 바위섬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현숙 기자 ▶관련기사/회보 4-5면

목록

(http://www.gangjin.go.kr)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